

Citylife

July 8 2014 No.435

매일경제

미술계의 순정 병맛
예술에 내려앉은 B급 정서

〈신의 한 수〉 정우성의 진가
예술과 맛집 탐방 안양예술공원
미천골자연휴양림 명상과 산책의 숲



건강비법

100세로

MBN

〈건강비법 '100세로(路)'〉 백세에도 청춘으로 산다

〈동치미〉 센스 있는 부부 솔루션

〈기막힌 이야기-실제상황〉 그들이 괴물이 된 이유는?

〈건강비법 '100세로(路)'〉 오한진·김성주·허미숙

미술계의 순정 병맛

예술에 내려앉은 B급 쟁서

현대미술 시장이 팽창하면서 매해 10만명 이상의 대졸 미술가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상업화랑 소속작가가 아닌 신인들은 아목을 끌거나 개인전을 열기 어렵다. 오랜 경기 침체와 함께 위축된 청년 미술가들의 활동은 패러디와 일탈, 엉뚱함에서 오는 B급 쟁서로 폭발하고 있다.

글 박찬은 기자 자료제공 가나아트센터, 아트허브, 국제갤러리, 고양문화재단, CJ E&M, OCI 미술관, 아마도 예술공간, 매경DB

대중과 만난 예술,
B급 병맛으로 돌아오다



김현정<나를 움직이는 당신>(2014) 한지 위에 수묵담채, 콜라주, 130×19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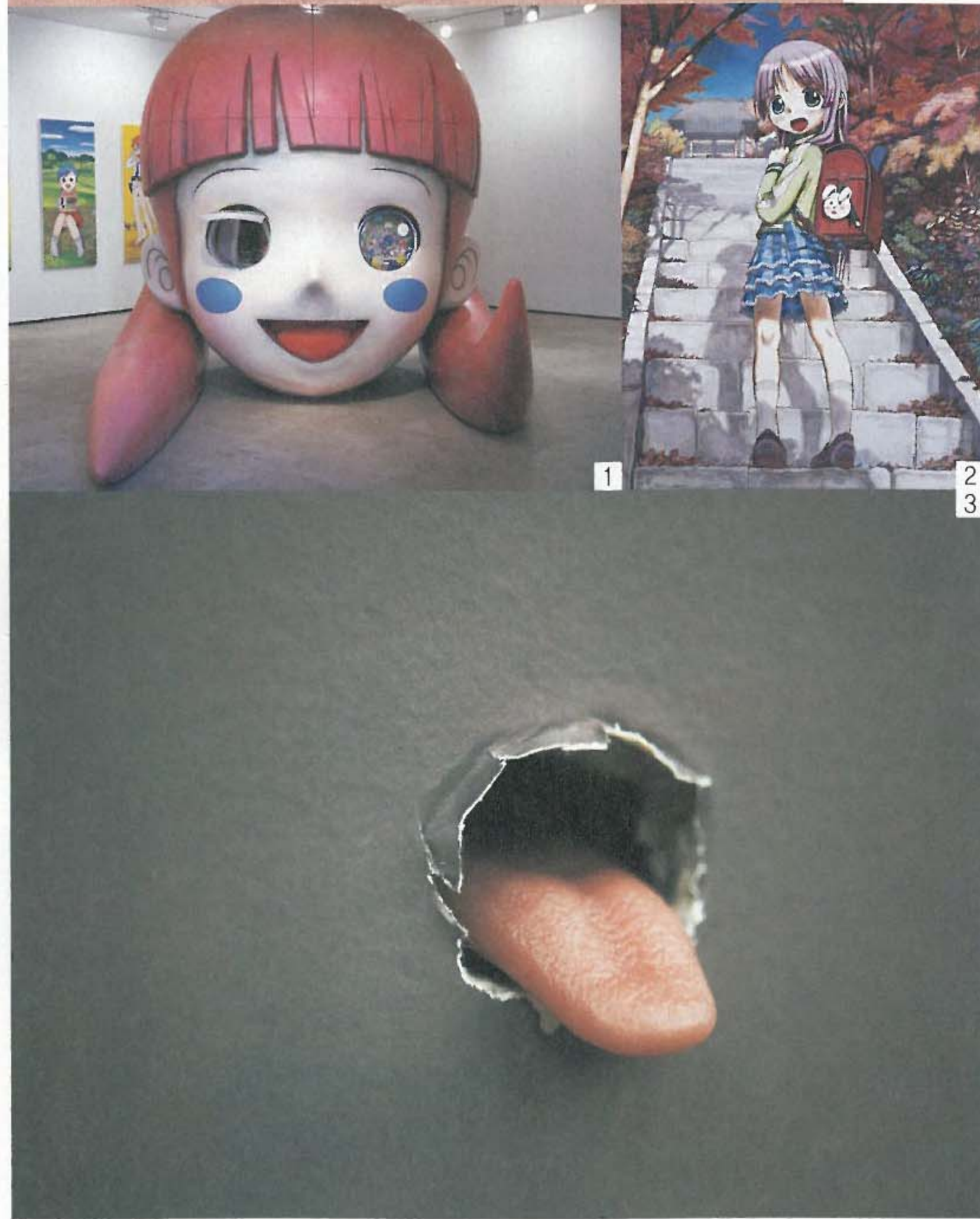
“대충 그린 듯한 작화체, 비정상적인 이야기로 구성된 웹툰에서 시작된 병맛이 TV를 거쳐 미술계에 내려앉았다. 기존의 공모전 방식이 아닌 <아트스타 코리아>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망가지기도 하고, 전문가들과의 난상토론을 통해 작가검증 과정을 공개하는 신개념 전시도 생겨났다. 이제 대중은 아티스트입네 하는 태도 대신 망가지길 때 공감하는 B급 병맛 카타르시스를 좀비처럼 소비하게 된 것이다.”

- 1.이우성, 무너진 가슴, Gouache on canvas, 65.1×50.0cm, 2013
- 2.유은석 <스파이더맨>(사진출처 다음카페 여성시대)
- 3.아트스타 코리아
- 4.전시과정을 경험받는 '아마도' 매뉴얼날레에 출품된 이정형(검쳐지는 부분-We), digital image, 2013
- 5.아마도 예술공간 난상토론

얼마 전 부산의 한 백화점에서는 외관 벽에 설치된 작품이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됐다. 거꾸로 매달린 스파이더맨의 신체 일부가 선정적이며, 원작에 대한 모욕이라는 항의전화가 쇄도한 것. 작가는 철거 전 “아침의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을 영웅에도 적용하여 거짓 없고 가식 없는 아침의 모습을 코믹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슈퍼히어로가 되기를 강요 받는 현대인의 일상을 빗댄 연작 시리즈 작업을 하고 있는 유은석 작가의 작품이었다. 어쩌면 그는 고뇌에 찬 영웅 대신 발랄한 영웅의 일상성을 보여주려 한 건 아닐까. 미션 수행과 순발력으로 예술가의 역량을 판단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아트스타 코리아>는 예술도 '대중미술'로 소

비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흔히 '병× 같지만 재미 있다' '병× 같지만 어쩐지 멋있다'로 대변되는 병× 같은 맛, 일명 '병맛'은 어떤 대상이 '형편 없고 어이없음'을 상징한다. 디시인사이드 카툰 갤러리에서 처음 사용된 유행어로 중학교 미술시간에 배운 골게임(익살)과 일종의 풍자, 해학을 생각하면 된다. 이에 대해 미술 평론가 임근준은 SNS를 달군 '등신미'를 유의어로 소개하며 “과거 세대와 달리 예술가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는 야심을 갖지 않는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형태의 창작 방식을 모색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획일화된 제도에서 벗어난 신진 작가들이 열패감을 미학화해 현실을 극복하려 한다는 것.

패러디와 오타쿠의 'B급 병맛' 보여주는 전 세계 작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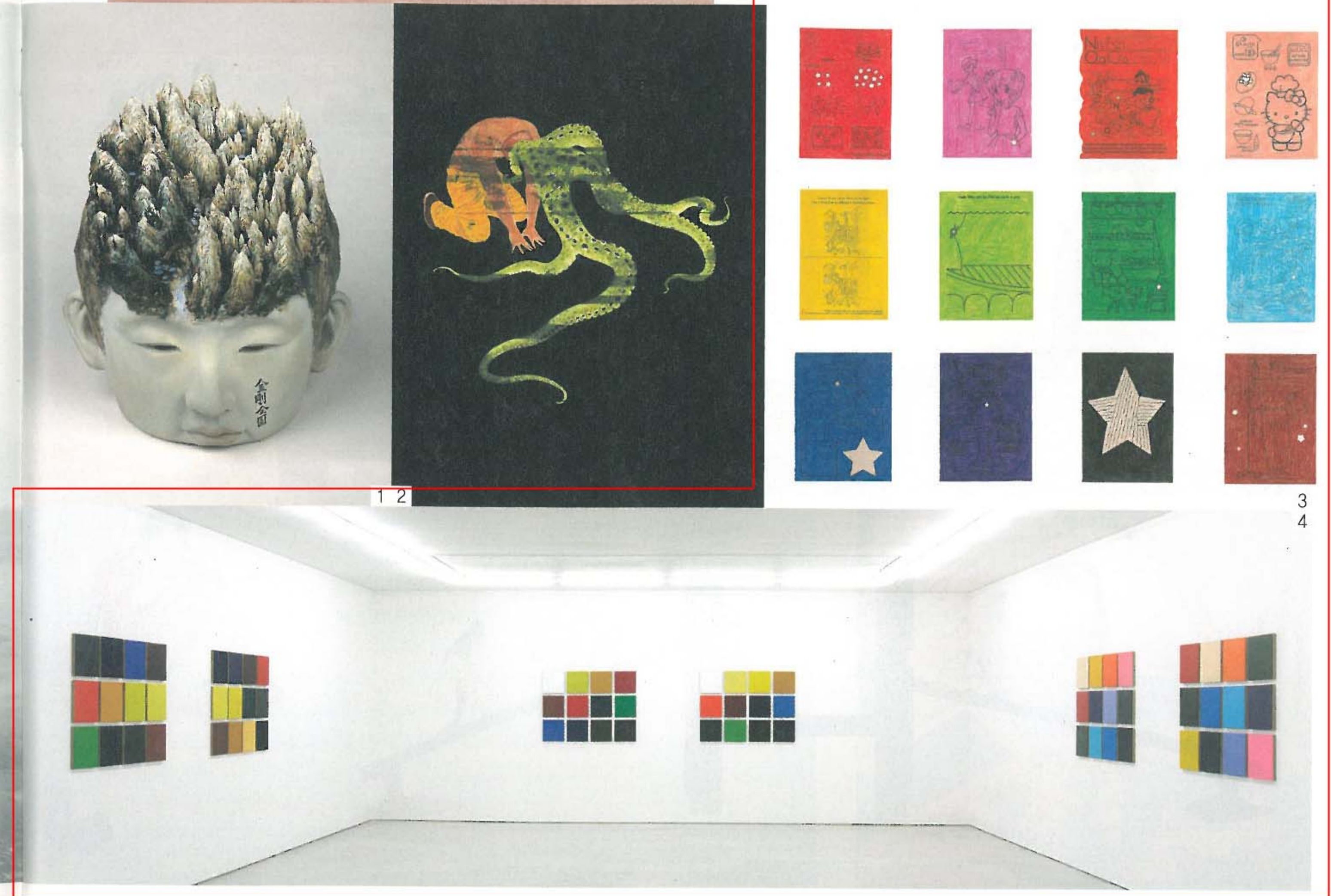


1. 미스터(Mr.) <떨기 목소리>(2007)_FRP, 철, 기타 재료_295×274×300cm
2. 미스터(Mr.) <쾌창한 시월의 하늘>(2010)수채물감, 연필, 종이에 아크릴 41.9×29.7cm
3. 우르스 피셔(누아제프)(2009)_다중 매체_가변 크기
4. 우르스 피셔(세흐비스알라프랑세즈(Service a la francaise 모든 요리를 한꺼번에 내오는 서빙 방식)(2009)_반사 재질의 크롬 스틸에 실크스크린 가변 크기

미술 전문 잡지 <아트나우>는 현재 왕성하게 자신의 작업세계를 전개하고 있는 현대미술 작가로 일본의 오타쿠 문화를 대표하는 회화 작가 미스터(Mr.), 스위스 조각가 우르스 피셔, 조사연구와 설치 작업을 병행하는 한국인 4인조 아티스트 SMSM(최성민, Sasa(44), 박미나, 최슬기) 등을 꼽았다. 이들 작가의 공통점은 패러디하는 것과 패러디되는 피사체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점. 팝아티스트 무라카미 타카시의 조수로 일하며 오타쿠 문화를 전수한 작가 '미스터'는 오타쿠의 외피적 특징을 가져온 무라카미와는 달리 미소녀 자체에 100% 집착한다. 그래픽 디자이너

최슬기와 민, 현대미술가 박미나와 Sasa(44)가 결합한 SMSM은 조사연구 프로젝트에 바탕을 둔 짓곳은 작업을 자주 한다. 예를 들면 서울-광주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기능성 음료를 모두 모아 '종합 에너지 각테일'을 만들고, 면책동의서에 서명한 관객에게 나눠주는 식(〈에너지!(Energy)〉)이다. 한편 현대미술의 여러 양상을 벤치마킹해 마치 그럴 듯한 현대미술 작품처럼 보이는 작품을 선보이는 우르스 피셔는 '설치미술로 사기를 치는 훌륭한 가짜'로 곧잘 불린다. 관객이 다가서면 혀가 튀어나오는 그의 작품 <누아제프(Noisette 고기요리의 일종)>를 보라.

정형화된 12색 레디메이드 컬러는 가래



1. 김윤재 <금강전도 연작3>(2013) 강화 플라스틱 위에 혼합재료 34×34×40cm
2. 하용주 <잉여인간11>(2012)80×60cm 한지에 먹, 채색
3. 박미나 <12색의 드로잉들 연작>(2013)_Colored pencil on coloring page[지구과학 색연필] 34.5×26.5cm_each(framed) ©Kukje Gallery
4. 박미나 국제 갤러리 설치전경 2층 ©김상태, kukje Gallery

약 100년 전 마르셀 뒤샹이 그 유명한 <샘>을 제출한 뒤로 '기성품'이라는 뜻의 '레디메이드(ready-made)'는 모던아트의 하나가 됐다. 헬로우 키티 캐릭터 위에 연필회사가 지정한 12가지의 컬러가 덧입혀진 박미나 작가의 <12색의 드로잉들 연작(12 Colors Drawings)>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색칠 공부를 초월한다. 해, 달, 별의 이미지가 있는 학습용 색칠공부 낱장 위에 유명 문구 상표 '모나미'와 '지구 슈퍼 색연필' 12색으로 그린 작품은 각 물감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한 '기본색'이 실은 상업화 목적으로 유통된다는 점을 알려준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팝아트 작가 박미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총 7개의 물감회사에서 생산한 11개의 12색 유화 물

감을 회사별 고유의 색채 명칭과 배열된 순서에 따라 나열했다. 상업적으로 생산된 원상태의 물감을 그대로 캔버스에 입힘으로서 '색의 레디메이드식 물성'을 비판한 것. 전통적인 수묵화와 채색화의 중간 기법을 사용, 머리 대신 문어가 붙어있는 인간을 그린 하용주 작가의 <잉여인간11>은 현대인의 소통 부재에 대한 상징이자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표현하고, 김윤재 작가의 <금강전도 연작3>은 과거의 풍경과 함께 기억 또한 상실하는 현대인의 인체를 산과 함께 표현했다. 이 두 작가의 작품은 7월 19일(토)부터 9월 21일(일)까지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에서 열리는 <고양 신진작가 초대전 19>에서 볼 수 있다.